

테임즈, NC떠나 메이저리그에서 뛴다

밀워키와 1600만 달러 3년 계약 체결

KBO리그 NC 다이노스에서 3년 동안 강타자로 활약한 에릭 테임즈(30)가 다시 메이저리그(MLB)에서 뛴다. 밀워키 브루어스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자유계약선수(FA) 테임즈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4년째인 2020년에 구단 옵션이 걸려있다. 3년 계약 총액은 1600만 달러(약 187억원)이며 2020년 구단이 계약을 연장하면 최대 2450만 달러(약 28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테임즈는 내년에 4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2018년과 2019년에 연봉이 100만 달러씩 올라간다. 4년째인 2020년 구단이 계약을 연장하면 75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구단이 계약 연장을 포기할 경우 바이아웃 금액은 100만 달러다. 타석당 인센티브, 마이너리그 거부 조항, 계약 종료 후 FA 자격 취득 등 선수에게 유리한 조건들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200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인 토론토 지명을 받아 프로 무대를 밟은 테임즈는 2011년 빅리그에 데뷔했다. 그러나 플래툰 외야수로 기용되며 좁혀잡힌 자리를 잡지 못했다. 수비가 평균 이하라는 평가도 받았다.

타격 성적도 광범했다. 2011년 95경기에서 타율 0.262 12홈런 37타점을 기록했고, 2012년 토론토와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8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2 9홈런 25타점의 성적을 냈다. 결국 테임즈는 2014년 한국 무대를 선택했다. 테임즈는 NC에서 뛰는 3년 동안 괴물같은 성적을 거뒀다. 한국에서 3년 동안 타율 0.349 124홈런 382타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2년 연속 40홈런을 돌파했다. 한국 무대 데뷔 첫 해부터 타율 0.343 37홈런 121타점으로 맹타를 선보인 테임즈는 지난해 타율 0.381 47홈런 140타점 40도루 130득점을 기록,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올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테임즈는 타율 0.321 40홈런 121타점의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테임즈는 FA 대박을 터뜨리면서 다시 빅리그 무대를 누비게 됐다. 테임즈는 "밀워키에 오게 돼 정말 영광이다. 작년이나 2년 전, 3년 전에 나의 미래는 불확실했다"며 "나의 재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준 밀워키 구단에서 뛰



KBO리그 NC 다이노스에서 3년 동안 강타자로 활약한 에릭 테임즈(30)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밀워키 브루어스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했다.

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예전에 메이저리그에 왔을 때 공격적인 타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전했다. 밀워키의 크레이그 카운셀 감독은 "원손 강타자가 없어 시즌 내내 고민이었다. 테임즈를 영입하게 돼 기쁘다"며 밝혔다.

데이비드 스티븐스 단장은 "테임즈는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타자 중 1명이 됐다. 파워와 스피드를 모두 보여줬다"며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 원손 타자를 찾고 있었고, 테임즈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민근기자

KBO, 내년시즌 10개 구단 재계약대상자 명단 공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2017년도 보류선수 572명 명단을 공개했다. 올 시즌 KBO리그 소속 선수 가운데 내년에 재계약할 대상자로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은 사실상 방출 통보를 받은 셈이다. KBO리그 등록 선수 총 680명 가운데 시즌 중 임의탈퇴된 선수와 자유계약선수 34명, 군보류 선수 9명, FA 미계약 선수 11명 등 54명이다. 지난 25일 제출된 보류선수 명단에서 다시 추가로 54명이 제외돼 총 572명이 보류선수로 공시됐다. 구단 별 보류선수는 두산 59명, NC 57명, 넥센 57명, LG 54명, KIA 61명, SK 56명, 한화 60명, 롯데 62명, 삼성 49명, kt 57명이다. 반대로 제외 선수는 삼성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LG와 SK는 7명씩이다. 롯데 5명, 두산 3명이며, 나머지 구단은 4명씩이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권순태·로페즈, 클럽월드컵 출전 불발

전북현대의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일조한 골키퍼 권순태와 브라질 출신 로페즈가 부상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전북에 따르면 권순태와 로페즈는 각각 오른 정강이 피로 골절과 왼 무릎 십자연골 파열로 수술대에 오른다.

권순태는 올해 4월부터 오른 정강이 피로 골절로 고생했다. 클럽월드컵 출전을 대신해 수술을 받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복귀가 가능해 2017 시즌 준비에 큰 차질은 없다. 로페즈는 지난 26일 아랍에미리트(UAE) 알아인에서 열린 알아인과의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에서 경기 시작 2분 만에 무릎 부상을 입었다. 앞으로 6개월가량 회복과 재활에 집중할 계획이다. 클럽월드컵은 각 대륙 챔피언 6개 팀과 주최국 1개 팀까지 총 7개 팀이 출전하는 대회로 2000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13번째다. 올해 클럽월드컵은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요코하마에서 열린다. 전북을 비롯해 유럽 대표 레알 마드리드, 북중미 대표 클럽 아메리카(멕시코), 아프리카 대표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 대표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콜롬비아), 오세아니아 대표 오클랜드 시티(뉴질랜드)의 출전이 확정됐다.

/김민근기자

U-17 축구대표팀, 이스라엘 4개국 친선대회 출전

U-17 축구대표팀이 이스라엘 4개국 친선대회에 출전한다. 이스라엘축구협회 초청으로 웨퍼암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개최국 이스라엘과 독일, 세르비아 U-17 대표팀이 자웅을 겨룬다. 한국은 12월 13일 세르비아와 첫 경기를 갖는다. 이기면 15일 결승전을 치르고 패하면 3~4위전을 갖는다. U-17 대표팀은 2년 후 아시아 U-19 챔피언십과 3년 뒤 U-20 월드컵에 참가하는 연령대로 내년부터 아시아 대회 예선에 출전할 예정이다. 국제 대회 경험이 적은 U-17팀에게 이번 친선 대회가 국제 경쟁력을 쌓을 좋은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정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KFA 유소년 전임지도자인 박성배, 김필종 김대환(KK) 코치가 보좌한다. 참가 선수는 20명으로 K리그 유소년 소속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다.

/김민근기자

브라질축구팀 전세기 추락사에 축구계 "애도"

결승전 상대팀 기권 선언 "우승팀은 사페코엔시"

전 세계 축구계가 브라질 사페코엔시 축구단 선수 및 관계자들이 전용기 추락으로 인해 사망한데 대해 충격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추락한 비행기에는 선수들 및 코치, 경기 취재를 위해 동행한 브라질 축구 기자 21명, 그리고 승무원 9명 등 총 7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망했다. BBC 등에 따르면 탑승자는 당초 81명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확인한 결과 탑승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 중 4명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다고 콜롬비아 재난대책본부는 밝혔다. 사페코엔시 축구팀은 브라질의 작은 도시 사페코를 연고지로 하는 팀으로 1973년 창단된 이후 2014년에야 처음으로 브라질 1부리그에 진출했으며, 30일 콜롬비아 메데안에서 열리는 중남미축구대회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 전용기로 이동하던 중

29일 오후 10시15분께 메데안 공항에서 50여km 떨어진 라우나온의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전은 사페코엔시 축구팀 창단 역사상 가장 큰 경기였다는 점에서 팬들과 축구계의 슬픔은 더 커지고 있다. 결승전에서 사페코엔시 팀과 맞붙을 예정이었던 콜롬비아 아틀레티코 나시오날 축구팀은 사고가 난 직후 사페코엔시 팀을 우승 팀으로 만들기 위해 기권을 선언했다.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에게 2016 코파 수다메리카나 챔피언은 영원히 사페코엔시이다"라고 선언했다. CNN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은 현재 남미축구연맹의 기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은 또 트위터를 통해 팬들에게 당초 경기가 열리기로 했던 시간에 모두 흰옷을 입고 경기장에 나와 사페코엔시 선수들에게 마지



막 인사를 하라고 제안했다. BBC에 따르면 사고 소식을 들은 사페코 시민들은 팀의 상징색인 녹색과 흰색의 옷을 입고 전용경기장인 아레나 콘다로 모여들고 있다. 학교와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았을 정도로 시 전체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브라질 1부 리그 소속 축구팀들도 29일 공동성명에서 사페코엔시에 무료로

선수들을 임대해주겠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 3년 간 사페코엔시 팀을 강등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리그 측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웨인 루니, 펠레 등 세계적인 전 현직 축구선수들도 사페코엔시 선수들을 애도하는 메시지를 일제히 발표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견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